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어린아이를
그대의 아이로 알고 찾으라.
이 아이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느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기쁨에 넘칩니다. 식구가 한 명 더 늘면 가정의 연대감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후에 그 아이들은 부모와 재산을 돌보게 됩니다. 부모의 과한 집착은 아이들에게 때로는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부모들은 너무도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부모들이 나쁜 행도을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을 아이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종용합니다. 자신이 모른다 하더라도 인과응보에 따라 서로 해를 찍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모들은 나쁜 짓을 하여 오점을 남더라도 부를 축적하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자식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나쁜 행동으로 부모에게 해를 끼칩니다.

당신의 자손으로 순수자작이라는 선천적으로 내재돼 있는 아이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은 망상에 가려져 이 아이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맑은 마음으로 명료하게 찾는다면 그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당신이 죽더라도 그를 당신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만이 원초의식과 공성의 합일인 마음의 본성이라는 고향으로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개신교 반대로 ‘차별금지법’ 좌절되나

민주당 김한길 · 최원식 의원 법안 철회키로

일부 개신교계의 주도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 · 최원식 의원이 철회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신교계의 상식 밖의 반대 운동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 최원식 의원은 4월 17일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의사를 밝히고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올리는 글’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한 단일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법안 철회의 목적이 단일화 된 법안 상정의 목적임을 밝혔다.

하지만 철회 배경에 개신교계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을 에둘러 전했다. 두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안 발의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발의 후 일부 교단(개신교)의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됐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물론 법사위 소속 의원 및 위원회 행정

항의전화 · 서명 압박 이어져
“단일화 법안 발의” 해명
인권은 정략 대상 아냐

자승 스님 등 불교계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실까지 항의전화로 업무의 차질을 빚었고 의원을 상태로 낙선 운동의 압박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현대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단을 포함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치권은 두 의원의 철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입법 발의가 철회된다면 보수 기독교 세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개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초유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두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입지와 부담을 이유로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계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인만큼 꼭 성사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개신교계가 동성애 반대를 이유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다문화, 인종, 다종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차별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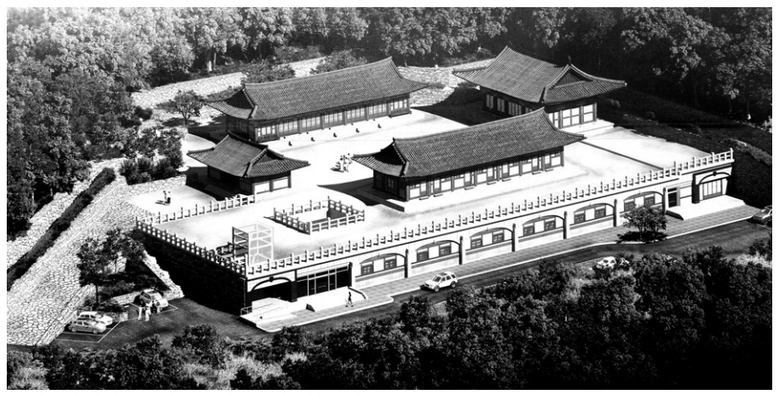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퇴휴 스님은 “인권은 보편적 규범이자 가치”라면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선언적 법안을 동성애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대다수가 개신교인인 서구 국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국 개신교계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대표(서강대 교수)는 “개신교가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몽니”라며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이 인권적 가치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불교계 단체들도 나서서 제정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복합문화공간 일심국제선원 기공

국제선원 등 5개동 갖춰
내년 10월 말 완공 예정


천태종이 단양에 준비중인 일심국제선원 조감도

불교문화를 포함한 한국전통문화를 국내외인들에게 알리고 수행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천태종 일심국제선원이 건립된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4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신축공사 현장서 ‘일심국제선원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도정 스님, 송광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일심국제선원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825㎡(2,370평)에 국제선원 1동(33.54평), 문화체험실 2동, 한마음문(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동으로 구성된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일심국제선원은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수행문화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선원은 단양과 충북을 널리 알리는 또 하나의 명품 문화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통리원 · 교육원 등 새 집행부 출범

4월 26일 총무부장 덕정 · 교무부장 원명 · 기획실장 혜언 정사 등

진각종 제29대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4월 26일 진각문화전승관 내 통리원장 집무실에서 통리원과 교육원 부, 실, 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통리원 총무부장에는 밀엄심인당 주교 덕정 정사가, 교육원 교무부장에는 혜정심인당 주교 원명 정사, 기획실장에는 보광심인당 주교 혜언 정사, 사회부장에는 심지심인당 주교 호당 정사가 임명됐다.

밀교신문 제18대 편집인에는 기획실장을 맡은 혜언 정사가 위촉됐다.

이에 앞서 신임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진각문화전승관 내 총인예경실에서 성초 총인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한편 진각종 교육원장에 아축심인당 주교 경당 정사가, 진각대학원장에는 시경심인당 주교 회성 정사가 내정됐다. 교육원장과 진각대학원장 내정자는 향후 종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김주일 기자**

14교구본사 범어사 방장후보 선출

5월 21일 산중총회 개최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수불스님)가 오는 5월21일 오후1시 경내 설법전에서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종헌 제105조 및 산중총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번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14교구 재적 스님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스님, 14교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종무원, 14교구 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니 스님 등이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4월27일부터 5월3일이며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5월12부터 14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신흥사 주지후보 우송 · 영수스님 등록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 우송스님과 건봉사 전 주지 영수스님이 입후보 했다.

3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22일 후보등록을 진행한 결과 우송스님과 영수스님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신흥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5월 2일 개최된다. **신중일 기자**

의정부 행복특별시 · 의정부 시승격50주년

제9회 경기북부
市사랑자비나눔 음악예술제

[무학대사 일대기]

일시 : 불기 2557(2013)년 5월 3일(금) 오후 6시 ~ 9시
장소 :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산 80-1)
문의 : 031)828-6885 공연문의 : 031)875-6214

모 시 는 글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의 축제 한마당인 **“제9회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나눔음악예술제”**가 8년 만에 의정부시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공연은 의정부시 승격 50주년을 축하하는 그 첫 행사로, 백성들이 살 맛 나는 세상의 건설을 꿈꾸며 치열한 구도의 삶을 보이신 **“무학대사의 일대기”**를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의 합창과 대중가수인 장사익과 홍경민의 축하공연으로 펼쳐집니다.
경기도민과 의정부시민의 축제의 한 마당인 시 사랑 자비 나눔 음악예술제에 부디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7 (2013)년 5월 3일

제 9회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 나눔 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경기도북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수
집행위원장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대홍 합장

행사프로그램

1부 봉축 법요식 [오후 6시]
[증명] 자승 큰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최기 이양식]
봉행위원장 (정수스님) ▶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대홍스님) ▶ 의정부시장(안병용) ▶고양시장(최성) ▶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장(도원스님)

2부 무학대사 일대기 [오후 7시] · 협 연 :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막 탄생 ····· · 지휘자 : 정회정 · 반주 : 현정실 · 고양시/파주시 연합합창단
제2막 출가 그리고 수행 ····· · 지휘자 : 김성범 · 반주 : 김미선 · 남양주시/포천시 연합합창단
제3막 태조 이성계와의 만남 ····· · 지휘자 : 오승희 · 반주 : 김경진 · 의정부/양주/동두천 연합합창단
제4막 살 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 · 지휘자 : 이준형 · 반주 : 서명자 ·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3부 특별공연 · 장사익, 퓨전엠씨(비보이) ,홍경민

[장사익]

[홍경민]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주최 : 경기도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 의정부시
연주 :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 협연 :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찬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파주시 / 포천시 / 가평군/ 양평군 / 연천군 - 불교연합회 일동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 한국불교태고종 | 대한불교천태종 | 대한불교관음종 | 대한불교 총화종 | 불대한불교진흥원 | PAJU 파주시 | Yangju 양주시 | 포천시 | BBS 불교방송 | 불교TV | 붕교신문 | 법보신문 | 불교신문사 | 주간불교